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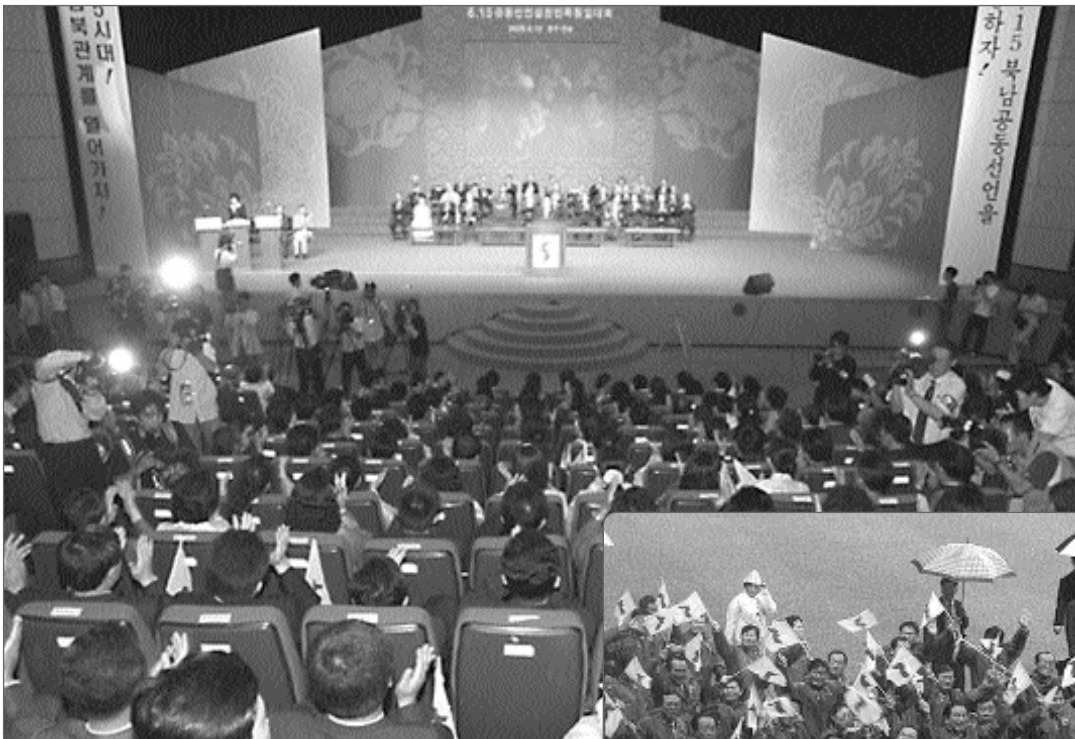


후원회 소식

통권 176호

발행일 2006. 6. 19 | 발행인 권오현 |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15일 오전 10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민족통일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14일 6·15민족통일대추전 개막식에 입장하는 북측대표단이 관중들의 환호에 단일기를 흔들며 화답하고 있다.
[인터넷사진 공동취재단 김주영 기자]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손경수선생을 만나다 신재민 • 5 / 감옥에서 온 편지강태운, 이병영 • 7 / 회원미당 · 옴시롱강시롱 봄기행 이현근 • 10 / 회원미당 · 산행기 김환진 • 12 / 회원미당 · 단국대 법사회학회 후원주점 홍세희 • 14 / 이런 회원 · 김지영 회원 오영순 • 15 / 북녘어린이 공우유보내기 운동 • 17 / 시사민평 • 18 / 슬픈 일 • 19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 / 알립니다 • 22 / 이런일이 있었어요 • 23 / 재정보고 • 31 / 회비를 내주신분들 • 32

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 yangsimso@hanmail.net

온겨레가 힘을 모아 침략외세 막아내고 자주통일 앞당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 주한미군 철거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선결요건이다—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다시 6·15공동선언 6돌을 맞게되었다.

민족의 화해협력과 자주통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웠던 이날은 이제 새로운 민족명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관이 함께하는 6·15민족통일 대축전을 열기로 했고 특히 반미자주의 요람 광주에서 막을 올려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6·15공동 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6·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축전에서는 북측대표단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남북해외대표단과 일반참관자등 3만여명이 함께하는 개막식과 남북해외 합동예술공연, 6·15민족통일대회 각부문별 상봉행사, 기념축하공연, 남북통일미술전, 체육오락경기, 환영·환송기념 축하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6돌을 맞는 오늘 조국반도에는 기념행사만 하기엔 매우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바로 이 역사적인 공동선언 정신을 짓밟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증스런 도발책동이 나라 안팎에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5.31지방선거에서 수구·냉전 집단이 압승하는가 하면 대북선제공격위협 등 제국주의 군사.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미·일의 침략동맹화가 강화되고 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베이징6자회담이 미국의 대북금용제재 등 노골적인 체제전복 책동으로 9·19 공동성명마저 빛을 잃어 가고 있으며 미.일의 반북 패거리들의 대북인권소동이 빈번해지고 있다.그밖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평택미군기지 확장정지도, 한·미 합동북침군사연습, 주한미군의 전력

강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모호성문제 등 전반적인 대북압박공세속에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긴장의 먹구름이 개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민족끼리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6·15 공동선언에 정면배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온 정의평화와 사회진보에 대한 반동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반동의 원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에 있지만 정부당국의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부족과 실천적 정책부재 그리고 무능력을 지적할 수 없게 되었다.

6·15 공동선언 이행에는 남북사이의 적대 관계 해소와 동족을 상대로 했던 모든 외세와의 동맹관계 해체가 필수적이었다. 바로 상대(이북)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땅을 반세기넘게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철거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허무는 일이었다. 공동선언 발표 6년이 되는 오늘 남북사이엔 놀랄만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종 당국자 회담이 이어오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가동,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한해 15만명이 넘게 남북으로 가고 오며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상 군사 분계선 확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 협력과 자주통일로 갈수 없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세

로부터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침략적 주한미군과 한·미·일 공조체제 그리고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한 조국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도 남북사이 화해 협력정책 등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짐했고 실제로 상대적 개혁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후반기가 되기까지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권자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철거를 비롯한 그 몇가지 사례와 대응책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참여정부는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법안”에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6·15 공동선언을 먹칠하려는 저의로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되고 단독 통과시킨 반시대적 법안이었다. 특검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구 냉전 언론들은 공동선언 정신을 철저히 짓밟았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제동을 걸며 6·15 공동선언 이행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되돌릴 수 없는 실책이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살려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유물을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었다. 물론 집권여당도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발의해 놓고 있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1,000여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60여일동안 한겨울 칼바람속에서 단식 노상농성을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에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지만 집권여당은 끝내 법안처리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개혁하라며 150석이 넘는 다수당으로 성원해 준 유권자들을 배신했다. 이처럼 대북송금 특검과 국가보안법을 살려 놓음으로서 6·15 공동선언 시대 역사 속에 사라졌어야 할 수구·냉전, 사대·매국 세력을 되살리게 하고 확장하면서 마침내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게 했다.

국가보안폐지가 수구·냉전 집단이 억지 부리듯이

이른바 “적화통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에서 분명히 답해주고 있었다. 바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 비방 중상금지, 파괴·전복행위금지, 무력불사용과 무력침략포기 등 안전장치가 확고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없애야 했다.

참여정부는 이제라도 대통령 남은 임기안에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 반통일 반인권 냉전악법을 폐지하고 이 악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으로 구속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없는 사면, 복권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하나 6·15 공동선언이행의 결정적 걸림돌로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주한미군(미국)은 해방된 우리땅을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제멋대로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했으며 다시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령군이자 또한 세계 지배를 위한 군사패권의 전락수단이기도 하다. 이미 유엔에서 해체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 “유엔군” 모자를 쓰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최상의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이땅을 강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은 ‘Corea 정전협정 제60조’에서 규정한 정전협정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조선으로 부터의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 및 조선문제의 해결할 과제 이행’ 할 것을 어기고 있으며 부당하게 96개소 80,250,000여평을 무단점검하고 주둔비 사용료를 내기는 커녕 방위비 분담금 등 명목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수십억달러를 지원 받고 있다.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 등 전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둔목적이 불분명하고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점령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핵무기, 열화우라늄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들여와도 한국정부에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북으로부터 침공방어 등 전쟁억지론과 지역안정론을 내세워졌지만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시대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주둔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세변화에 따라 반세기 전에 주권침해 등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하고 미군은 지체없이 이땅에서 떠나게 해야 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오히려 이른바 방어적 목적에서 선제공격적으로 ‘군사변환’을 꾀하고 있다. 그것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GPR)이나 전략적 유연성, 평택미군기지 확장시도 등에서 드러났듯이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하며 평택기지를 동축을 겨냥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린 침략기지화하려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는 이제라도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철거와 동축을 상대로 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면 단계적 철수안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신속 기동군화 하면서 2008년까지 1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말한바 있다. 그렇다면 350여만평이나 되는 기지확장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본토로 철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한 해상군사 분계선을 합리적으로 합의 확정하여 우발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끼리 피흘리는 비극을 없어야 한다. 남북은 오히려 일본의 독도 침략책동과 미·일의 침략 군사동맹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일 양국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외무, 국방장관이 함께한 ‘미·일 안정보장협의위원회’(2+2 위원회)에서 주일 미군기지 개편안 등 통합작전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미서부 워싱턴주에 있던 미 육군 제1군 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가 2008년까지 일본 가나가와현의 자마 미군기

지로 이전하기로 했고 이곳은 육·해·공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거점사령부(UEX)가 되며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총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육상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기동 집단사령부도 2014년까지 이곳에 배치 미·일 공동사령부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도 2010년까지 도쿄의 미공군 요코타 기지로 옮겨와 양국의 미사일 공동방어(MD)를 위한 ‘공동통합운용조정소’란 이름의 작전센터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미·일의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에 맞서 남과북은 더욱 철저히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화해협력과 반전평화로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6·15공동선언 6돌을 맞아 민간통일 운동진영은 그동안의 거둔 업적을 점검하며 부족된 점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다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3월 금강산에서 이제까지의 행사위주 통일운동을 지양하고 남과북 해외동포 등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위하여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준비위원회’(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 고침)를 결성했고 이제 두 번째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한된 일부 인사들만의 행사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공동위원회 이름으로 특히 남측의 경우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거, 평택미군기지확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구체적으로 행동한 일이 없었다. 더 많은 대중을 추동해 내기 위해서는 주장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공동목표와 지향에 대한 구체적 행동의 선도적 역할 또한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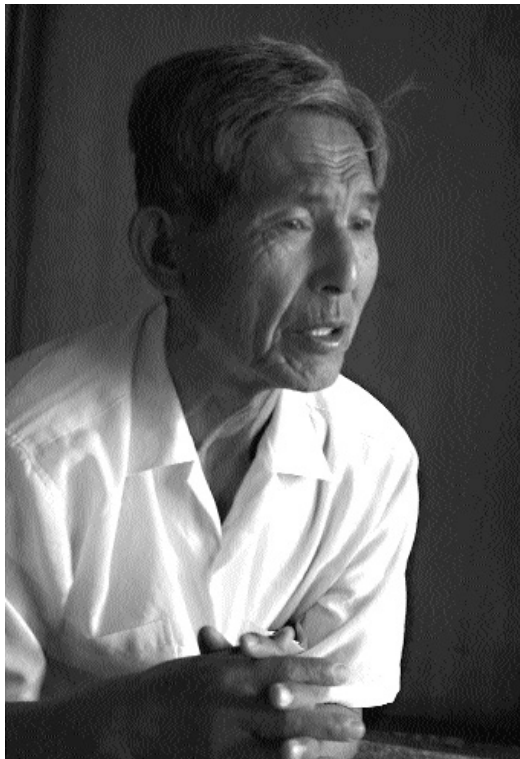
이제 6·15공동선언 발표 6돌을 맞는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온겨레가 힘을 모아 침략외세 막아내고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자신보다 먼저 간 동지들을 더욱 위하시는 손경수 선생님

신재민 | 한남대학교신문사 기자

“일제 침탈 이후, 이 땅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자주 국가인 적이 없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손경수 선생님의 눈은 평소의 온화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선생은 이 말과 함께 “내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지만 이것만은 이야기 하고 싶다”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선생의 가문은 논산에서는 알아주는 지주였다. 가문의 어른들은 일제침략 이후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례로 1945년 3월경 선생의 친형님이 경신중학교 졸업 이후 일본군의 징병대상이 됐다. 당시 징병대상자들이 입대를 할 때에는 위생을 위한 빨래 비누만을 소지할 수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선생의 작은 아버님은 선생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작은 방에서 선생의 형님께 빨래 비누에 구멍을 뚫고 당시 일백원(당시 쌀 한말은 1원이 조금 안 됐다)지폐 3장을 말아 넣고 그것을 형님에게 건넸다. 작은 아버님은 빨래비누를 건네주시며 “네가 남 사단으로 갈 것이니 만주로 파병 될 것이다. 따라서 만주에 가면 이 빨래 비누만 가지고 독립군 기지를 찾아 가져라”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선생은 집안의 가풍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가풍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지만 학생이었던 선생은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해 8월 15일, 한반도에는 광복이 찾아왔다.

당시 선생은 서울의 중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한반도의 광복이 이들 밖에 지나지 않은 45년 8월 17일 하숙을 위해 고모님 댁이 있는 아현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를 회상하던 선생은 “서울 하늘에 B-52(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빠라(전단지)를 뿌렸다”며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선생은 전단을 주워서 읽었다. 전단은 내용은 ‘미군이 상륙하기 전까지 한반도의 치안은 일본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읽고 선생은 “외세는 한반도를 단 하루도 독립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일로 광복 이후 숨어 살던 일제의 앞잡이들이 다시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됐고,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라며 선생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 후 선생은 서울에서 대전의 대전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고,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선생은 운동을 하면서 3번 붙잡혔으며 20여년을 옥에서 보냈다. 47년 미·소 2차 회담이 결렬되면서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이 행해졌다.

이 때 선생은 처음으로 1년 6개월을 형을 받았지만 집행 유예로 48년 1월에 풀려났다. 그 이후 48년과 51년 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선생은 출소 때 까지 여러 차례의 전향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여러 차례 전향 요구에도 선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선생의 아버지도 선생에게 전향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선생은 “아버지께서 편지를 통해 융통성이 없는 아들을 질책하시고 일단 전향을 한 후 출소해서 이루지 못한 뜻을 펼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사육신 중 ‘유성원(충신 중 하나로 수양대군(首陽大君)의 협박에 못 이겨 청난공신(淸難功臣)을 록훈(錄勳)하는 교서를 썼다. 이로 유성원은 붓대를 꺾고 참회했다)’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한문편지를 아버님께 답장으로 보냈다”라며 아버지의 전향권유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이야기해줬다. 이에 선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더 이상 선생의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무기수로 수감된 선생은 ‘4·19혁명’으로 15년으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선생에 대한 전향요구는 끝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듬해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장기수를 따로 관리하고 면회조차 불허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전향요구를 위한 소장실에서의 면회만은 허가 됐다. 몇 해를 전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버님도 선생의 생각에 동의한 마당에 선생에게는 면회의 기회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의 수감번호를 외치며 “면회”라고 말하는 간수의 목소리에 선생의 마음은 철렁 주저앉았다. 면회를 하게 된 때에 대해 선생은 “아버님과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보다 전향요구에 대한 압박이 더 컸다”고 말했다.

소장실로 향한 선생은 교도소 소장이 “지금이라도

전향서를 쓰면 바로 석방될 것이다”라고 아버님께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이때에 대해 선생은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했다”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선생의 아버님은 소장에게 “나이가 30이 넘은 아들의 뜻을 내가 어찌 꺾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아들에게 전향 요구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 일 이후 선생의 아버지께서는 편지의 ‘한시(漢詩)’를 통해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하지만 선생이 만기 출소를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의 얼굴에 웬지 모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선생은 이외의 물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선생은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지금은 자주적 세력과 강대국의 그늘에서 머무르려는 세력과 60년간의 투쟁의 시대이다”며 “모두의 생각은 다르지만 약소국의 설움을 후손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고 청년들보다 당찬 어조로 말했다.

평생 조국의 자주권을 위해 운동해 온 손경수 선생은 2차 송환 대상이었다. 이에 선생이 송환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로 했다. 하지만 질문하기 전 필자는 ‘본래 고향이 논산이었던 선생에게 송환은 큰 의미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의 “이 땅에서 죽어간 동지들을 두고 우리만 편히 살수 없다”라는 말씀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각종 언론과 유언비어들로 인해 ‘먼저 선입견을 갖고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

6·15와 8·15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강태운 | 대구교90

권오현 회장님 전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우편물들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회장님이 다시 어려운 일을 맞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후원회 소식지에서 18차년도 정기총회 소식을 잘 읽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 걱정이 많아집니다.

민중들은 잘못된 자본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적당한 부패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평등이니 하는 정의로운 담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합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권회장님의 활동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8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6·15와 8·15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지도록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권회장님 건강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5일

대구에서 강태운 올림

구치소내 처우개선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병영 | 서울구97

권오현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총련 활동을 하다가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이병영 이라고 합니다.

남대문 경찰서에서 보었는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에서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고회기념 문집도 잘 보았습니다.

한 평생 투쟁의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의 역동적인 인생의 면면들이 잘 담겨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선생님 앞날에 더욱 보람차고 활기찬 내일이 개척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분들의 걱정과 염려, 배려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식지와 후원금도 잘 받았구요.

이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편지 한 통이 더 그리워지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더 간절해 집니다. 밖에서의 투쟁소식, 동지들에 대한 안부와 걱정, 그리움이 참으로 커진답니다.

그런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관심과 애정 쏟아 주시고

소식지를 통해 밖에서의 투쟁소식을 전해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지에 있는 투쟁소식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서 밖에서의 투쟁을 그려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을 비록 엄청난 액수의 돈은 아닐지라도 동지적 애정이 담긴 돈이기에

제 가슴 한구석에 훈훈함과 든든함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권오현 선생님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분들 덕분에

남은 수감생활도 잘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구치소생활! 구치소는 역시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교도관들은 “인권이 이렇다 저렇다” “구치소는 많이 변했고 좋아졌다”는 말을 강변하듯

줄줄 외워대지만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99년 광주교도소 생활과 비교해봤을때

달라진 것이라곤 거의 없는 '오십보 백보' 차이입니다.

교도관들의 권위적인 사고방식, 관료주의적 행정, 낙후한 생활환경, 비위생적 보건실태 등등...

지금 저는 구치소내 처우개선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개척할 것이 있다면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요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본격적인 투쟁이 개시되면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현 선생님! 아무쪼록 선생님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안녕과 건투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후원회원들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밝힙니다.

자주와 통일의 새날이 빠르게 개척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곳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소 후 건강한 몸으로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2006년 5월 29일

서울구치소에서 이병영 올림

충무공의 유적지와 거제 포로수용소를 다녀와서

이현근 | 회원

아침도 거르고 일찍 집을 나섰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딸아이는 전날 저녁부터 아파다며 일찍 잤는데도 배가 영 불편한 모양이다. 서산 봉래누님이 보낸 떡 상자를 들고 경부고속도로 신갈 간이정류장에 오르니 비가 굿기 시작했다. 서울서 내려온 일행들과 합류해서 남행하니 비는 그치고 하늘만 흐렸다. 배 아픈 딸아이가 다소 나아지는 것 같았고 날씨도 기행하기에는 적당했다. 더구나 팔순잔치를 앞둔 김수룡 선생님과 후원회 신악대장인 신현익 회원이 함께 해서 모두들 기뻐했다.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개통되어서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거제포로수용소 앞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고 식당을 나서니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앞서고 어른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뒤를 따랐다. 관람동선을 따라 한 시간 정도를 걸으며 구경을 했는데 일부 관람건물은 탱크건물이나 철모 모양을 본뜬 것이 놀이동산처럼 보여서 오히려 눈에 거슬렀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관람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자 장연희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구경 잘했나요? 뭐 느낀 점 없나요? 나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역사란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전시물이 완전히 과거 지향적으로 되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지 못했나요?” 거기에 하나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성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거를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동선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수용소 대장의 집과 PX건물터 같은 미군들이 사용했던 콘크리트 건물 잔해만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 건너편 산자락 아래까지 넓게 퍼진 비안개 속의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반세기 전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도 이곳에서 한번쯤은 저 반대편 높은 산 아래

까지 끝없이 펼쳐진 수용소 막사를 내려다보면서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막막함으로 서있지는 않았을까 떠올려 보았다.

거제를 벗어나 통영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날씨가 완전히 개어있었다. 시내는 선거유세로 음악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세병관은 관람객도 거의 없었고 비가 온 후라 큰 건물과 나무와 풀들이 정적 속에 있었다. 이용준 회원이 윤이상 음악제 자원봉사자로 내려와서 인맥을 만들어놓은 터라 세병관에 대한 설명도 건물 이름의 유래부터 건물의 축조과정 그리고 목조건물의 형태까지 문화해설사의 소개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글과 사진으로는 정면 9칸 측면 5칸짜리 건물이 단지 기와집으로 보여서 현판 글씨 하나가 2미터나 되는 건물의 웅장함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세병관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대로변에 충렬사가 있는데 나무들이 크고 우거져서 작은 숲 속에 들어온 것 느낌처럼 아늑했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까지는 가파른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울창한 나무들과 고요함 속에는 숭고한 정기가 느껴졌다. 도시의 건물들이 통영만을 많이 가리고 있어서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세병관과 충렬사가 있는 이곳에서 보는 통영 앞바다는 무척 아름다웠을 것이다. 다시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 해안도로를 이용했는데 무수히 많은 만들과 섬들 그리고 포구 근처에 자리 잡은 집들이 한데 어울려 수려한 한려수도풍을 이루고 있었다.

저녁은 젓갈 냄새가 물씬 나는 된장찌개와 멸치 찜이 주 요리로 나오는 백반을 먹었는데 경상도 음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아침에 괜찮아 보였던 딸아이가 다시 토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병원에 가야할지 걱정되

었다. 바늘로 손을 따고 식당 아주머니가 준 소화제를 먹어서 숙소로 돌아와서 계속 손바닥 지압을 해주니 차가웠던 손이 따듯해지면서 잠이 들었다. 조출한 뒤 풀이가 시작되었고 선거와 시국에 대한 토론으로 여느 때와는 다른 진지한 분위기가 늦게까지 이어져 늘 빠지지 않던 끈들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었다.

밤새 바람이 몹시 불어서 걱정했는데 아침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청

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한려수도를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설레이게 했다.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륵산에 올라 편백나무 숲을 걸었다. 이른 아침이 아닌데도 사람이 거의 없었고 어제 비까지 와서 풀냄새가 향긋했다. 어둑한 편백나무 숲을 벗어나자 산 중턱에 탑이 세워진 바다로 트인 작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한려수도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사진으로 저 바다의 아름다움을 배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시 편백나무 숲을 되돌아서 미래사에 들려 조용한 경내를 둘러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반대편에 있는 용화사로 향했다. 날씨가 쾌청하고 서늘해서 기분 좋은 산행이 되었고 용화사에 닿기 얼마 전에 너른 공터가 있어서 농민가에 맞추어 잠시 꼭지점 댄스를 즐길 여유도 있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여객선터미널로 가서 한산도로 가는 11시 배를 탔다. 바다 위에서 부서지는 금빛 햇살에 잠시 현기증을 느끼는 사이에 한산도에 도착했다. 부두에서 해안을 따라 1키로 미터 정도를 걸어가면 이순신 장군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용준 회원이 소



개한 해설사가 우리와 동행해서 한산도 도착부터 이순신 장군과 병사들이 사용했다는 우물과 '한산섬 달 밝은 밤'으로 유명한 수루, 활터, 제승당을두로 둘러보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투명한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섬들이 만들어내는 유려한 곡선의 해안선은 왜병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역사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빠듯한 일정으로 뛰다시피 걸어서 배를 타고 다시

여객선 터미널로 돌아왔다.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얼큰한 해물찌개와 멸치 회 요리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의 찜과는 전혀 다른 맛이였다. 멸치 회를 깻잎과 양배추 같은 야채와 새콤한 초고추장에 버무렸는데 소주 안주로는 이만한 것이 없었다. 점심 후에 기행의 마지막 장소인 남망산에 올랐는데 시민들의 공원으로 만들어진 작은 산이지만 통영만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김춘수 시인이 시에서 자주 말하던 남망산을 드디어 와보게 되었다. 조용히 었드린 섬들로 둘러싸인 통영 앞바다의 오밀조밀한 아늑함과 불어오는 바람은 시에서 상상한 모습 그대로였다. 시인은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남망산 위에 걸린 낫달을 올려다보며 처용을 생각했을 것이다. 바다에서는 쉬임없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부둣가 어딘가에 늙은 처용이 살을 부대끼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저 부둣가를 걸으며 그 처용과 스쳐지나가는 인연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 한려수도의 바다와 하늘과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켰다.

5월 인왕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 보며

김환진 | 회원



2006년 5월 21일 일요일 아침.
양심수후원회에서 매달 오르는 산행, 그 5월의 산행이 돌아왔다.

전날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와 운영위원 워크숍이 새벽녘까지 진행되었던 터라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말로만 많이 들어봤지 오르기는 처음인 인왕산에 산행을 갈 생각을 하니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 새벽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였던 종로에서 권오현 회장님, 김지영 부회장님, 신현부 회원님과 출발하여 사직공원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회원들이 일찌감치 도착하여 산행에 오를 준비를 하고 계셨고 뒤이어 다른 회원들도 속속 도착하고 계셨다.

김호현 부회장님, 신현익 회원님(산행대장님이시죠 ^^)과 함께 근처에서 이것저것 점심식사거리를 시장을 보고 참석인원 확인과 산행회비를 납부받은 후(항상 산행회비 납부에 성심을 다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답니다 ^^) 채비를 갖추고 산행에 올랐다.

이번 5월산행단의 멤버는 변숙현, 류종인, 김장현, 김영식, 조순덕, 유민호, 윤달임, 박경순, 김지영, 김호현, 김재현, 김재선, 신현익, 나순석, 나민지, 이창희, 한수정, 이용준, 신현부, 민경우, 홍세희, 김환진, 권오현(죄송합니다 존칭을 생략했습니다 ^^) 선생님, 어머니, 회원 등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발걸음도 가볍게 오르기 시작한 산행길... 이었지

만 전 날의 피로와 아직 덜 깬 술기운 탓에 얼마 오르지도 않아 타는 목마름과 천근만근의 다리가 압박을 가해왔고 난 ‘그래 그냥 앞만 보고 가는거야! 금방 정상에 나올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말그대로 그냥 걸었다.

엄살이 좀 심했나보다. 사실 산을 오르는 길에 회원들 사이에서는 전날에 벌어졌던 사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에대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또한 5·31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던 터려 선거이야기 등 시사문제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고 나역시 없는정신에 경청하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사직공원 입구에서 출발하여 인왕산길을 내달려(네, 짐작하시겠지만 물론 진짜로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 성터를 지나 인왕산 정상에 오르는 동안 전망이 좋은 곳에서 서울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던 찰라... 청와대와 부속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지는것이, 못볼 것을 본 것 같은 그 기분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도 컸었던 모양이다.

정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한 후 이창희 전 양심수후원회 간사가 봐놓은 크고 평평한 바위(바로 밑은 낭떠러지 였습니다. ^^)에서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전 간단한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진행을 하시는 권오현 회장님의 “다들 알만한 얼굴들이니 회장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라는 센스 넘치는 발언으로 점심식사를 기다리는 시간은 대폭 단축되었고 곧바로 맛있는 식사가 이어졌다.

정말 말 그대로 진수성찬 민가협 어머니들께서 오신 덕에 반찬도 푸짐하고 김밥만 해도 몇 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메뉴로 호텔뷔페에 못지 않은 맛나고 멋진 산상의 점심식사를 가능케 해 해주셨다. (특히

물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니~)

점심식사가 끝난 후 민경우 통일연대 전 사무처장님의 시사강연이 진행되었다.

최근 미국의 이란침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북·미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있는 남한의 정세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 등의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식후의 나른함으로 졸려오는 두 눈을 부릅뜨고 강연을 경청하면서 다른분들의 모습을 둘러보는데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다. 졸려움을 참고있는 내 모습이 순간 부끄럽기 짝이 없어지며 선생님들 어머니들도 진지하게 경청을 하시는데 젊은놈이 멍해있으면 안되겠다는 다짐으로 끝까지 경청을 할 수 있었다.

강연을 마치고 잠깐의 취침휴식(^^) 시간을 가진 후 올라왔던 반대편 길로 하산길에 올라 다시 처음 산행을 시작했던 사직공원으로 내려와 근처 한 주점에 자리를 잡고 뒷풀이를 진행하며 함께한 산행단 여러분들과 6·15통일축전에 관한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면서 짧았던 산행의 하루를 마감하였다.

이번 산행은 양심수후원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민가협 어머니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뜻깊었다 하겠다.

민경우 선생의 시사강연도 그 내용이 알찼었고, 여러모로 정말 보람찬 산행이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산행기를 마친다.

이후의 매달 이어지는 산행에서 많은 회원여러분의 얼굴을 뵈기를 희망하며...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를 위한 단국대학교 법사회학회 후원주점

홍세희 | 회원(단국대 법사회학회장)

땀 흘리고 배우는 사·학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후원주점! 회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속에서 무사히 치뤄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회학회장 홍세희입니다 ^^

5월 24일~26일 3일간 단국대학교 법사회학회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후원주점’을 하였습니다.

실무조, 음식조, 선전조 등 조별로 주점준비를 시작하면서 06학번 새내기들과 함께 양심수와 양심수후원회, 그리고 우리가 주점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몇 거리도 진행 하였습니다.

처음 주점을 하는 새내기들에게 그동안 선배님들이 해오신 후원회와의 연대활동에 대해 깊게 이야기 해주지 못했고 올해 있었던 연대활동에 많은 새내기들을 조직화하지 못해 내심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4일 주점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심수후원회원들과 법사회회원들이 함께한 대동한마당.

저희들이 미숙한 솜씨로 준비한 술과 안주를 드시면서 학회원들에게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법대 노래패인 ‘통일의 함성’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후원회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학회원들과 회원여러분이 하나되어 어울리는 모습은 부족한 저희들에게 너무도 힘이 되어 주셨고 아직도 제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둘째날에는 졸업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재학생, 교수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마지막날에도 많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2박3일동안 밤을 새며 주점을 지키고 주점 내에 붙어있던 양심수, 그리고 양심수후원회에 대한 대자보를 보면서 주점에 대해 그리고 연대활동에 대해 끊임 없이 생각했습니다.

법사회학회는 사회과학학회로서 주로 사회과학도서를 읽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이러한 책들을 통해 우리의 아픈 현대사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들을 배우면서 연대활동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가 깊게 녹아있고,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연대활동을 열심히 해 보고싶은 욕심이 생겨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와의 연대활동과, 이번에 치른 후원주점을 통해 저와 학회원들은 또 한 뼘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연대활동을 하여 올해를 마무리 할 때 즈음에는 저희들 자신이 무척이나 성장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학생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의 패기로, 청년의 가슴으로 언제나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 사람

오영순 | 편집위원

바로 코앞에 두고 병원 건물을 찾지 못해 헤매면서도 짜증나기 보다는 ‘누구일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에 설레이기만 한 날이다. 그도 그럴것이 양심수후원회와 인연 맺은 이래 술자리에서 때론 모임 장소에서, 김지영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워들었던 터라 필자에 궁금증은 더했다.

김지영 회원님이 운영하는 내과 병원은 아담함속에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환자 진료를 혼자서 감당하며 책임지고 있는 회원이 병원 안에서 얼마나 바쁘실지 단박에 느낄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날에 만남 또한 점심 시간을 틈내어 만남거라 조급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필자를 되려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준 사람은 김지영 회원이었다.

1953년 3월 2일 태어난 곳은 부산이나, 줄곧 서울에서 생활했다는 회원의 고향은 서울이다. 어렸을 적부터 책 읽기와 음악 듣는게 취미였다는 회원은 중·고등시절 모범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녔나보다. 그 어렵다는 연세대를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선·후배들과 밤새 술먹고 어울리는데 돈을 썼다고 하는 회원은 공부벌레 딱지를 벗어던지고 싶은 반감 때문에 마음껏 놀았다 한다. 하지만 그건 사람을 좋아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여 어렵게 번 돈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쓴 것만 봐도 김지영 회원에 인간에적인 면은 애초부터 남달랐나 보다.

김지영 회원이 사회과학을 처음 접한 건 그무렵이

였다. 제대로 된 사회과학 서적이 없었기에 일부러 책을 읽기 위하여 일본어 공부까지 하였다는 회원은 책 안에서 여지껏 모르고 지나친 문제의식을 깨달으며 진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소설 책을 출간한다. 하지만 그 책을 출간해놓고 그 모든게 ‘대상화’해서 쓴 글이라는 좌책감에 빠지게 된 회원은 무작정 걱정말라는 편지를 부모님께 남긴 채 가출을 한다.

공단거리로 유명했던 가리봉동에 단칸방 1개를 얻어 봉제공장에 취업한 회원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갖은 잡일로 배고픈 하루를 보낸 첫 날밤 힘겨움에 참 많이도 울었다 한다. 결국 이튿날 봉제공장을 출근하지 못한 김지영 회원은 시간이 여유로운 전자회사에 취업한다. 전자 회사에서는 일을 금세 배워 조장까지 맡게 되었기에, 여성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비롯 의료 지원까지 보살펴주며 생활했다 한다.

추운 겨울 온기라곤 찾기 힘든 공장은 살얼음판처럼 추웠고, 벌레가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밥을 먹고 살아야 했던 회원은 감기 몸살로 앓아눕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낮에는 관리자 소임을 다해야 했고, 남들이 잠들어 있는 밤에도 종사원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베풀고 싶은 마음에 책 읽는 일로 소일하다 보니 ‘천하장사’라도 견뎌내기 힘들었을게다.

밀바닥 생활을 몸소 부딪치며 생활했던 1년이란 세월은 김지영 회원에게 있어선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이었단듯 하다. 빈부층 계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베풀고 가꾸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된다는 생각에 회원은 복학을 결심한다.

그당시 무단 결석하면 무조건 폐교처분 대상이었던 것과는 달리, 회원이 써놓고 간 편지와 우리도 어디있는지 모른다는 부모님에 사정애기,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한 영향 탓이었는지 회원은 아무 탈없이 그해 복학을 하였다.

87년도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전의협)를 결성해 진료부장을 맡게 된 김지영 회원은 농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은 물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봉사 활동에 나선다. 그러던중 ‘말’지에서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된 회원은 주저없이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회장님에게 연락을 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한다.

후원회와 처음 인연을 맺을 때, 그속에서 다른 이들이 못하는 일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회원들이 있었기에 훈훈한 열기를 식힐 재간이 없었다 한다.

어느 곳에(기업, 단체) 가든 회의가 길었지만 양심수 후원회 회의는 항상 짧은 대신 뒷풀이는 시간가는 줄 몰랐기에, 따뜻함과 훈훈한 열기를 다른 곳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회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난 날 송환되신 선생님들을 직접 뵈었을때, 더 젊어지시고, 건강해신 선생님들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다는 회원은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후원회 회원 모두 올라가 그런 만남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안고 있다.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김지영 회원의 말이 왜이리 필자에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던지,

참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머리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기 힘든 일을 회원은 자신에 과제인양 겸허히 실천해 내고 있다.

어디 한 곳 쉴 곳 없어 힘들어 하는 장기수 선생님들에 보금자리와, ‘양심수 후원회’ 사무실을 선뜻 생

활공간으로 내어준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김지영 회원이 회원들에게 말했다. 유독 후원회에 서만 찾아볼 수 있는 따뜻한 가슴들을 잃지 말고 자신에 행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으로 나눠주고, 몸으로 보여주며 살면 못해낼 게 없다고,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그런 일들을 양심수후원회에서 이뤄내자고... 그런 일들이 모아지면 ‘장기수 선생님’들과 권오현 회장님에게 이제는 조금 쉬실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마음을 나눠주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는 회원이 또 하나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사랑의 마음을 담은 쿵우유 북녘아이들의 미래에 보냅니다.’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본부장을 맡고 있다. 평양 근교 탁아소·유치원(51곳)을 지정하여 쿵우유기계와 쿵우유를 지원하는 일이다. 그것은 각(단체, 개인)들에 후원금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WWW.krhana.org)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되돌아 오는데, 문득 어리석은 자는 핑계를 찾고, 지혜로운 자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문귀가 떠오른다. 어디서 봤을까? 모르겠지만,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몸소 실천해내고 있는 김지영 회원이 우리 사회에 진정 꼭 필요한 스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멋스럽고 자신감 넘쳐 보였던 까닭도 김지영 회원이 나아가고 있는 생이 진정한 생활인에 살이기 때문일 게다. ‘참다운 스승’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흐뭇한 날이었다.

※김지영회원은 10년이 넘게 양심수 후원회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장기구금 양심수의 건강검진과 진료를 해오셨습니다. -편집자 주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

북녘동포돕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은 양심수후원회의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지영 회원이 사업본부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통일의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기를 기원하며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에서 벌어나가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kongmilk.org'를 참조해 주세요.

-편집부

한 핏줄 한 겨레의 마음으로 통일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려는 남과 북의 마음을 모아 가장 맛있는 콩우유를 보내려 합니다. 대규모의 공장건설 및 지원이 아니라 직접 소형 콩우유 기계와 재료를 102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지원함

으로써 유통비/포장비를 줄일 수 있으며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콩우유를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묶어내고 이들의 참여가 바로 통일의 밑거름이며 더불어 지름길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소형 콩우유기계 및 매달 콩우유재료 지원

102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지원을 결정하여 콩우유기계와 매달 콩우유 재료를 보내고 북녘의 아이들은 매일 한잔씩의 콩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다.

● 폭 넓은 홍보사업

전국적인 캠페인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언론사업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북녘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때나 아이들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남에서도 북에서도 잘 키우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키우려는
남과 북의 부모의 다름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길이 있습니다.
콩우유 한잔과 통일미를 두 손잡!
북녘 아이들이 마음껏 콩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통일된 콩우유가 아이들의 장래를 밝게 하고 아이로써 보게 될
콩우유에 사랑을 듬뿍 담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장성을 이어한한한한 통일 다짐들을 놓아
우리 함께 선습니다.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본부장 김지영 평의원 박경자 전담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통일인연 만들기

통일을 향한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함께 키우는 마음 모아 1대 1방식의 지정지원을 통해 남과 북의 통일인연을 맺고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콩우유사업 홈페이지 : www.kongmilk.org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권오현 양심수후원회)



◀ 시사만화방, 2006년 6월 5일, 최인수



▶ 한겨레그림판, 2006년 6월 9일, 장봉군



하종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생을 조국통일의 그 날을 위해 헌신하시었던 장기구금양심수 하종구 선생님께서 5월 15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선생님 생전의 뜻을 기리기 위한 '통일운동가 고 하종구 선생님 추모식'이 5월 17일 발인에 앞서 있었습니다. 삼가 통일애국지사 고 하종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편집부—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통일광장 소속의 출소장기수들과 범민련 원로들, 양심수후원회원 등 40여 명이 모여 '통일운동가 고 하종구 선생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분이 노출되어 서울로 올라와 생업에 종사하던 중 배신한 옛 동료의 밀고로 1958년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시다 1960년대 초에

출소하시었습니다.

하종구 선생님은 1922년 7월 22일 경남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77번지에서 부친 하창식님과 모친 노마순님 사이에 태어나 고향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선린상업학교를 졸업,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하셨으며 해방 후 1945년 근로인민당에 가입, 1948년 2·7구국투쟁에 참여하여 수배를 받아 입산활동을 하면서 남로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전쟁전 중앙당 연락을 받고 서울로 가는도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시다 전쟁 시기 출옥을 하여 다시 낙동강 전투에 참전 했으며 왜관, 달성 등에서 활동하다 지리산으로 옮겨 이현상부대의 사단급 정치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 1954년 함양군 군당 재건과정에서 신

선생님께서 1989년 양심수후원회가 결성되면서 옥중 동지들에 대한 동지애적 연대감으로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셨고 병으로 입원하시기 전인 2004년 12월까지 꼬박꼬박 회비를 내주시는 정성을 보이셨습니다.

추도식은 통일광장 권낙기 공동대표 사회로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추도사와 상주(하정기)의 가족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이어 오신 분 헌화하는 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선생님 시신은 벽제화장장에서 화장하여 일산 기독교 기념회관에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고 하종구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2006년 6월 15일 현재 총 78명,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신용관	노동자	건설연맹	황새울 토지강제 수용 반대	2006-04-07	특공			평택구213	미결
고태환	노동자	건설연맹(경기서부)	울산플랜트노조 집회관련	2006-03-02	집시,폭력			서울구83	미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폭력	1년6월+1년	07/11	대구교86	기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2005-05-17	업방,폭력	1년6월	06/10	진주교6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07/07	대구교52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12-29	업방,폭력	10월		부산교874	기결
이강호	노동자	공공연맹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집시			평택구204	미결
박대규	노동자	금강화섬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폭력	1년6월+1년6월	06/11	부산교1406	기결
유형대	노동자	금속연맹(기아차)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집시			평택구209	미결
김일주	노동자	금속연맹(기아차)	황새울 철조망 시위	2006-05-05	군사시설보호법			수원구301	미결
박대권	노동자	금속연맹(쌍용차)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집시			평택구210	미결
윤태수	노동자	금융노조(조흥은행)	구조조정반대	2005-09-08	폭력	1년6월	항소중	서울구18	미결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노조	2005년 파업	2006-04-02	업방,집시			수원구324	미결
이원준	노동자	대구지하철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6-03-15	업방			대구교80	미결
이영철	노동자	덤프연대	파업	2006-06-10	업방,집시			인천서부경찰서	미결
박도근	노동자	덤프연대(전북)	노동환경 개선 촉구	2006-04-27	공방			전주교467	미결
정필운	노동자	레이크사이드OC 노조	부당해고 철회투쟁	2006-05-13	폭력			수원구786	미결
김웅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2005-06-13	집시,특공	1년6월	06/12	대전교1313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08/10	영등포교13	기결
김용철	노동자	서성공단 노조	칠곡환경미화원 농성관련	2006-04-18	선거법			대구구85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2003-12-22	폭력,업방	1년6월+2년6월	06/07/17	대전교1959	기결
한석우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농업진흥청 집회	2006-05-25	집시,특공			수원구350	미결
박기한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농업진흥청 집회	2006-05-25	집시,특공			수원구328	미결
이정수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농업진흥청 집회	2006-05-25	집시,특공			수원구329	미결
박운용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농업진흥청 집회	2006-05-25	집시,특공			수원구320	미결
이철의	노동자	전국철도노조	KTX 직접고용 촉구	2006-05-15	공방			서울구63	미결
서훈배	노동자	전국학습지노조	복직촉구 농성	2006-05-03	업방,폭력			서울구193	미결
박상길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농성	2006-05-05	업방,집시			영등포구3493	미결
박한용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농성	2006-05-05	업방,집시			영등포구3455	미결
엄기준	노동자	주유상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07/12	대전교2999	기결
황윤식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27	집시,폭력			서울구13	미결
최일배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2006-03-27	집시,폭력			서울구22	미결
송진만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2006-06-07	업방,특공			송파경찰서	미결
방재일	노동자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불법파견철폐 공공농성	2006-05-25	업방			수원구314	미결
이수중	노동자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불법파견철폐 공공농성	2006-06-12	업방			수원구313	미결
정연조	노동자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불법파견철폐 공공농성	2006-05-25	업방			수원구319	미결
김남균	노동자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불법파견철폐 공공농성	2006-06-12	업방			수원구317	미결
서준혁	노동자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불법파견철폐 공공농성	2006-05-25	업방			수원구318	미결
노필우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복직촉구 투쟁	2006-06-02	업방,건조물침입			서울구88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오병웅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복직촉구 투쟁	2006-06-02	업방건조물 침입			서울구 91	미결
신재교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5-10-21	집시폭력			청주교 726	미결
안종호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복직촉구 투쟁	2006-06-02	업방건조물침입			서울구 55	미결
전병호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복직촉구 투쟁	2006-06-02	업방건조물침입			서울구 71	미결
김태훈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복직촉구 투쟁	2006-06-02	업방건조물 침입			서울구 89	미결
조가영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철폐 시위	2006-04-20	공방			울산구 965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2005-11-05	특공치상	1년6월	07/05	장흥교 116	기결
차행태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확약서 이행촉구 크레인 농성	2006-04-22	업방			순천교 147	미결
정경진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확약서 이행촉구 크레인 농성	2006-05-15	특공폭력			서울구 76	미결
조대익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확약서 이행촉구	2006-05-15	특공폭력"			서울구 90	미결
권순만	노동자	GM대우차비정규직 노조	복직촉구 고공농성	2006-05-31	업방특공"			마산교 1257	미결
주국제	노동자	GM대우차비정규직 노조	복직촉구 집회	2006-05-31	업방특공"			마산교 2001	미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부산구 1516	미결
전옥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07/05	광주교 5009	기결
김영범	재야	경기청년단체협의회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			평택구 208	미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22	병역법			평택구 205	미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문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28	병역법	1년6월	07/01	김천교 569	기결
윤민진	재야	대추리주민	황새울 철조망 시위	2006-05-05	군사시설보호법			수원구 306	미결
송영민	재야	대추리주민	황새울 철조망 시위	2006-05-05	군사시설보호법			수원구 304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1-19	병역법			영등포구 2524	미결
정기봉	재야	민주노동당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			평택구 206	미결
홍승표	재야	민주노동당(용인)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집시"			평택구 211	미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19	병역법	1년6월	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기가소	춘천교 451	미결
최진	재야	작은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6-28	병역법	1년6월	06/12	청송제2교1329	기결
강태운	재야	전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2003-08-15	국보	6년	07/08	대구교 90	기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17	병역법	1년8월	항소중	서울구 1494	미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10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2005-05-03	화염병치사"	6년	상고중	서울구 61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2005-05-20	특공공방	1년6월	06/10	청주여 15	기결
정창운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	상고중	안양교 1588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2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62	미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07/08	서산구 103	기결
김병재	학생	서강대	황새울 철조망 시위	2006-05-05	군사시설보호법			평택구 304	미결
이일표	학생	연세대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			평택구 215	미결
이병영	학생	전남대	99년 민중대회 등	2006-04-24	집시국보			서울구 97	미결
조정익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1년6월	06/11	포항교 223	기결
김시현	학생	호서대	평택 대추분교	2006-05-04	특공치상			평택구 216	미결



장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 일 시 : 6월 20일(화) 오후 6시
 - 장 소 : 통일부북한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 품 명 : 민족과 운명 제56부(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 제6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년 제작, 100분 상영)
 - 줄 거 리 : 애국과 반역은 곧 혁명적 신념을 지키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 영화이다.
- ※ 문의: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산행-수락산에 오릅니다

6·15공동선언의 달6월! 통일의지가연중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6월입니다.

이번 6월산행에서는 수락산을 오릅니다.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산행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중에서의 맛있는 점심식사와 시원한 막걸리, 그리고 알찬 시사강연이 진행되는 6월산행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가 는 곳 : 수락산일대

■ 일 시 : 6월 25일(일) 오전 10시

■ 모이는장소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양심수후원회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은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지고 있는 때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도 계실줄 압니다.

양심수후원회도 최근 재정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양심수후원사업과 출소장기수 지원사업 그밖에 연대사업 등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회원여러분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비 입금액이 많이 줄고 있어 거의 매달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여러분,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일 많으시겠지만 바쁘시거나 혹은 잠시 잊고 내시지 못한 회비를 처음 가입하실 때의 그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MS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 또는 계좌이체 등 회원님의 편의대로 보내주시면 양심수후원회 운영에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드림

01

▲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고공단워크레인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해고자 2명이 노-시간의 협약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3차 크레인농성에 돌입하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사학법을 매개로 민생 법안 발목잡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의 취지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등이 있었고 박희진 한청 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주체사상 토론회',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등 논문에서 반국가단체인 이북의 주장에 동조하고 고무·찬양 했으며 징역4년에 자격정지4년을 구형하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강정구 교수는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보내겠다며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가 없이 결심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객관적 사실을 학문적으로 조명한 학문연구를 냉전잔재로 재판하려는 감사의 논고를 공박하다. 마치고 법원계단에서 결심공판에 대한 규탄집회를 갖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과 강정구 교수의 인사말 등이 있었음.

▲ 세계노동절 116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청앞 광장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쟁취, 한·미FTA저지, 민주적 노·사관계창,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등 4대요구안 실천을 위한 '민중총궐기' 돌입을 선언하고 '노동자대회'를 열다. 조준호 위원장 대회사,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등 결의발언 등이 있었고 홍경노총 엘리자베스·창 집행위원장 등 연대사가 있었음.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은 청계천 광장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대회'와 '4대요구 한마당' 등 각 부문별 문화공연이 있었음.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소속노동자 150명이 이 날 오전 평양 대성산 남문 앞에서 북측의 '노동절행사'를 참관하다. 참관단 단장은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과 한국노총의 유재섭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맡고 있었음.

▲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주민·시민사회단체 사이에 2차모임이 있었으나 국방부측이 ①영농행위중단 ②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공사준비활동보장 등 원론적 요구만을

내세우는가 하면 3일 오전중 답변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같은 주장을 하다. 이에반해 주민·시민사회단체는 ①양측모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 ②공정한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③3차회담을 8일 오후2시에 가질 것 등을 요구 하였음.

02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이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다.

▲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평택범대위와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개시 30시간 만에 일방적 최후통첩을 한 국방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다. 같은 날 평택 팽성 대추초등학교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방부의 평택군부대 투입 계획 규탄, 생명과 평화의 땅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다.

▲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기지이전협상 중단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이행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다.

▲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평택시민대책위 강상원 집행위원장, 평택범대위 이호성 상황실장 등 대책위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이 알려지다.

▲ 국방부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 창설 준비단 박경서 단장이 '7일 이전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다. 이에대해 평택범대위는 3일밤 10시까지 대추분교로 총집결 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에 호소하다.

03

▲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속 수배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개월 만에 무려 34명이나 구속되었으며, 2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 수배자만 최소 58명에 달해 이들에 한 명꼴로 구속, 수배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발표하다.

▲ 국방부의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 야간강제집행을 앞두고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가 이 날 오후 국방부 앞에서 평택 강제집행 계획을 규탄하는 긴급 촛불집회를 열다.

✎ 탑골공원 앞에서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대일행동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 이수호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대표 등 결의발언과 임상진 서울 흥사단 정책위원장의 발족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다.

✎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70차 정기수요시위'가 열리다.
수요시위에서는 평화헌법개악 반대, 미·일 군사동맹강화 반대, 위안부문제 등 법적책임이행 등을 촉구하다.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연대사가 있었음.

✎ 팽성 대추분교 비닐하우스에서 팽성주민대책위 주최로 610일 주민촛불행사가 진행되다.
권혁범 주민대책위 교육부장 사회로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 평통사 정용진 국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밤10시부터 전국에서 달려온 노동자, 청년학생 등 7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야간침대에 대비하다.

✎ 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0여 사회원로들은 종로1가 한 음식점에서 고국을 방문중인 6·15공동위 해외공동위원장인 곽동의 재일한통련 교문을 초청 간담모임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다. 모임을 마치고 이규재 범남본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지도부는 국방부의 대추분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비 대추리에 도착하다.

04-----

✎ 경찰, 용역, 군병력 투입을 통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무차별 폭행을 통해 이루어지다.

군병력은 관광버스 21대 가량을 나눠 타고 평택에 진입했으며, 경찰 병력이 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대추초등학교를 지켜내기 위해 모인 노동자, 학생,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을 통한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대추초등학교 완전 포위한 동안 군 병력이 헬기 등을 동원하여 황새울 들녘에 철조망을 설치하다.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11명의 신부 및 사제단이 결사항전을 결의하고 대추초등학교 지붕에 올라갔으나 연행자들에 대한 전원 석방을 조건으로 문정현 신부 및 사제단 천영세 임종인 의원 등이 옥상에서 내려와 저녁에는 611번째 주민촛불집회를 열다. 이 날 국방부의 부당한 행정대집행에는 경찰병력 13,000여명, 군병력 3,000여명, 용역 1,20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524명이 강제연행 당하고 300여명이 다치다.(후원회 소식 175호 보심)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모성룡, 한찬욱 운영위원이 본정리까지 와서 집회에 함께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616회 목요일집회가 열리다.

임기란 운영위원의 여는말, 이원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의 발언, 이영 상임의장의 '한·미FTA반대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역인 평택 대추리 대추초등학교 강제집행에 성난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서울 시민 500여명이 군 투입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야만적인 강제집행'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 하러 가자며 청와대 진격을 시도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류종인 선생님, 김지영, 김호현, 안병길, 김은, 김인해, 나순석, 모지희, 송창학, 김환진 회원 등 함께하다.

05-----

✎ 평택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청년, 학생, 사회단체 소속 2,000여명이 '생명과 평화의 땅 사수 범국민대회'를 갖다. 이날 집회는 경찰측의 봉쇄로 경찰과 참가자들의 대치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고, 참가자들은 도장산을 지나 도두리 쪽으로 행사장에 진입, 5시를 훌쩍 넘겨서야 집회를 시작하였고 '계엄 상태'인 황새울을 군병력과 맨몸으로 싸워 군사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전날 설치해 놓은 철조망을 뚫어내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과의 충돌이 있었으며 군인들은 허리춤 차고 있던 곤봉을 민간인에게 내리쳐 시위대 중 일부는 실신하기도 하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활동가들을 군과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하여 이날 하루동안 100여명이 연행되어 경기도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 조사하다. 양심수후원회 김환진 간사와 맹명숙 회원이 연행되어 성남중원경찰서에 유치되다.

06-----

✎ 평택 팽성을 대추리 노인회관에서 '평택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 사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범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 △야만적 폭행과 인권유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과 연행자 전원석방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군투입 철회 △공정한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전향적 검토 등을 촉구하다.

✎ 평택범대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 비가 오는 가운데 평택 팽성을 황새울 영농단 인근에 위치한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소유의 우사(牛舍)에 화재가 발생하다. 경찰은 불을 끄려는 주민들을 둘러싸 우사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여 미터에 달하는 건물 1/3(약 50평 정도)가 전소 상태다.

☞ 5일 대추리 등에서 강제연행되어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김환진 간사 등 9명을 면회 격려하다. 김환진 간사외에 광야교회의 맹명숙씨, 범민련 통일마당 이신아, 장순복, 통일여성회 장영심씨, 전북에서 온 활동가 문주현씨, 성공회대 김영학생, 부산통일시대 젊은 벗 관주희, 김수성씨 등이었음. 김호현, 송창학, 김은, 권오현 다녀오다.

☞ 대검찰청 공안부는 5·4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강제연행된 524명 가운데 37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0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하다.

☞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1200여 서울시민, 광화문서 4~5일 평택강제집행 규탄 집회가 열리다. 천주교 인권위 조백기 상임활동가, 성신여대 유안나 총학생회장 등 규탄발언과 4일에 있었던 만행의 동영상 상영이 있었음.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득형, 양계숙, 노혁, 이용준, 김혜정, 김은, 나순석, 송창학, 모성룡 회원 등이 함께하다.

07-----

☞ 서울 광화문 청계천 입구에서 시민·학생·시민사회단체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는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이날 촛불행사는 평택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주민촛불집회와 인터넷으로 이원생중계되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의 여는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5.31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함께 등장 옥중선거투쟁 각오로 싸우겠다고 선언하다. 아버지 날을 맞아 대추리주민 방효태 주민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으며 방효태 주민은 '평택은 우리땅'이란 노래로 답하다. 노래패 '우리나라' 가수 '오지총' 등 노래공연이 있었음.정부의 평택 강경진압에 분노한 참가자들은 본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촛불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그 자리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 한편 이날 밤 늦게 성남중부경찰서에서 풀려난 김환진 간사가 현장에서 회원들의 환영을 받다. 김지영, 모성룡, 소수영, 이득형, 양계숙, 나순석, 송창학, 이용준, 김은, 김환진, 권오현 함께하다.

08-----

☞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다. 비상시국회의에서는 국방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합의기구 등 요구사항을 토의하다. 또한 5.13~14에 있을 5·18행사를 서울과 대추리에서 각각 대규모로 진행하기로 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현 대표와 김환진 간사가 함께하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평택 그리고 한반도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고있는 정부에 대해서 신앙인 차원의 "불복종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히다.

09-----

☞ 광화문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진행되다. 이날의 영화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년 제작 '민족과 운명' 제52부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편 제5부가 상영되다.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지영, 김호현, 한찬욱, 김혜순, 소수영, 모지희, 이용준, 김환진, 권오현 함께하다.

☞ 금강산에서 10~11일 이틀동안 열릴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에 참가할 남측대표단 357명이 광화문 정문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후 금강산 코도로 떠나다. 대표단은 10일 금강산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대표자회의에 참가할 북측대학생 대표단은 100명이며 남·북단장 발언과 자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을 주제로 토론하며 삼일포 등 등반과 공동연회등 다채로운 상봉모임을 갖고 11일에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하다.

10-----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 대표 인사 86명은 '평택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입장과 평택 주민 입장을 절충할 대화채널로 '중립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다.

☞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주최로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열려 '평택사태' 관련 시위대측 부상자 현황과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지적하다.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4차행정대집행이 강행된 지난 4일만 병원후송 치료자가 160여명,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부상자가 300여명에 이르며, 군병력과 시위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5일 부상자는 100여명으로 집계발표하다. 특히 4일 부상자가 당일 시위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날 정부측의 강제진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다.

11-----

☞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황새울 들녘을 돌며 평화와 생명의

부활을 기원하는 평화 기원 기도회를 열다. 종교인들은 정부 당국에 대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화를 계속할 것과 군인철수,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공개사과를 촉구하다.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가 10일과 11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다. 이번 행사에는 남측에서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등 370여명이, 북측에서 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 성원 120여명이 참석,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617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임기란 운영위원의 여는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평택항새울 폭력진압한 국방부, 검찰에 대한 규탄발언, 이귀임 회원의 '폭력진압피해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006년 제2차 주관단체 대표자회의'를 열다. 사업보고에 이어 ●제17회 합동추모제관련 9월로 하는 문제 ●계승연대 사단법인 추진의 건 ●법인 임원선출의 건 등 토의끝에 원안대로 의결하다.

✎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후원회원)의 큰 따님 임 진 양이 신랑 노경환 군을 맞아 두 집안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화축을 밝히다. 두 분께서 한가정 이루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2

✎ 평택범대위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평택사태' 관련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데 대해, 평화적 문제해결의지를 평가하고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철조망 철거·군부대 철수' 등을 요구하고 5월 4일과 5일 평택사태의 책임자인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을 퇴진시키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하다.

✎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평택범대위', '민변'이 '위법적인 군사보호시설지정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한데 대해 절차상,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다.

13

✎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사회활동가를 비롯한 시민 5000명이 모인 가운데 14일 평택대추리에서 진행될 '5·18계승, 군부

대철수 범국민대회 승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다.

김지태 평성주민대책위원장의 영상편지낭독, 평택주민을 대표해 송재국 노인의 증언 등이 있었고 철조망이 그려진 펼침막을 찢는 상징의식이 있었음. 영화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의 결의발언, 노래패 '노찾사' 공연 등에 이어 평택주민들이 가져온 범씨를 주민들과 대표들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평택들녘에 희망의 범씨를 뿌리자!' 라고 호소하다. 촛불집회를 마치고 노동자, 학생들 흥익대로 옮겨 전야제를 갖고 14일 대추리로 떠날 준비를 하다. 한편 이보다 앞서 한총련은 국방부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광화문에서 3000여명이 모여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노동자 대회'를 열었음. 양심수후원회도 깃발을 들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다. 이득형, 모성룡, 송창학, 주경임, 양계숙, 이승미, 나순석, 나민지, 김은, 김민혜, 장경옥, 소수영, 신현부, 모지희, 김환진, 이성환, 권오현 등 함께하다.

14

✎ 평택대추리에서 열기로 한 '5·18정신계승 군부대철수,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검토, 평화농사실현 범국민대회'는 193개 중대 19,000여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추리 평화공원과 본정리 4차선도로에서 따로 열리게 되다. 경찰은 13일부터 평택에서부터 대추리로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어 노동자·농민·청년학생·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대회 참가자는 충남 성환과 아산 둔포 등지를 돌아 계양5거리 쪽으로 집결 넓은 논길을 따라 본정리 농협창고쪽으로 모이고 있었음. 오전 본정리에서 도두리로 가려다 경찰저지에 막힌 전교조 조합원들이 신정교회에 들어갔다가 무장경찰에 20여명이 연행되고 항의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다. 12시 대추리 평화공원에서는 주민들과 활동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열었고 본정리 쪽으로 나가려 했으나 경찰저지에 발이 묶이다. 본정리 근처 4차선 도로를 점거한 노동자·청년학생·각 단체성원 등은 오후 3시쯤 8000여명으로 불어나고 있었으며 경찰헬기는 수없이 대열 상공을 날며 해산방 송과 빠라를 뿌리고 있었음. 4시쯤 K-6협프리 부대 앞 도로에서 평택범대위 이호성 상황실장 사회로 '5·18정신계승 군부대철수,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검토, 평화농사실현 범국민대회'가 열리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천영세 의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결의발언 등으로 대회를 마치다.

15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군부대철수, 평화농사 실현을 위한 통일일로 기자회견'을 열다. 권낙기 통

일광장 공동대표 진행으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결의발언과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또한 이 날 스승의 날을 맞아 통일연대는 통일원로들을 초청 점심을 함께하며 원로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덕담을 듣다.

☞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가보안법 등 '대공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다.

☞ 6·25전쟁시기 남부군 소속으로 유격활동을 하여 오랜 옥고를 치르셨으며 통일운동에 헌신해오신 하종구 선생님이 2년여의 투병을 해오시다 이 날 새벽 3시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 한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찬욱, 권오현 강남성모병원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6 -----

☞ 서울대 봄철대동제기간 민가협(구학협)은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기금마련을 위한 '민가협장터'를 15~18일까지 열고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조명희, 임미영, 소수영, 나순석, 김은, 김한진, 권오현 등이 격려방문 했으며 '유가협장터'에도 다녀왔음.

☞ 남과 북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4차 장성급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문제, 서해 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등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가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육군소장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단장과 문성욱 육군대령, 엄현정 해군대령, 김형수 해군대령, 김창웅 통일부 과장이 참석 했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중장(소장)을 단장으로 리형선 대좌, 오영철 대좌, 배경삼 상좌, 박기웅 상좌 등이 함께하다.

☞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인 권위 등 공동주최하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회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80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리다.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대회사, 도두2리 이상현 이장, 평화바람 오두희 활동가, 평통사 김종일 집행위원장 등 결의발언과 박순희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철조망에 '기지확장재협상' '군대를 거둬라' 등 종이 피켓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갖고 마치다. 양심수후원회는 이 집회의 공동주최단체로 권오현 대표가 함께 했음.

17 -----

☞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는 사제단 소속 서울, 광주, 인

천, 안동, 의정부 지역 신부 10여명을 비롯, 신도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책과 공권력 그리고 생명파괴를 참회하는 식발단식 기도회'가 열리다.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장에서 통일광장 소속의 출소장기수들과 범민련 원로들, 양심수후원회원 등 40여명이 모여 '통일운동가 고 하종구 선생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별도 기사 참조)

☞ 후원회소식 175호 발송작업을 하다. 문상봉 선생님, 단국대 법사회학회 회원 4명(홍세희,권정은,김대석,권진하), 김한진 등 함께했음

☞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 이틀째를 맞아 남과 북은 서로 입장을 발표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마치다.

※남·북 입장요지

남측-철도·도로 통행에 따른 군사보장합의서체결 논의와 현 북방한계선을 준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원칙에 입각 ①무력 불사용 ②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③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협의 ④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⑤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었고

북측-서해상의 군사긴장완화를 위한 근원적 조치로

①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해 온 해상경계선을 다 같이 대법하게 포기한다 ②정전협정과 공인된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작성하여 여러 가지 군사적 신뢰보장 대책을 세운다 ③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철저히 상대방의 영토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 이에따라 북측은 서해 5개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 주변 관할구역문제를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 규정한다. 쌍방이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명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 ④쌍방은 이 같은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하는 경우 서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다. ⑤서해상 공동어로 실현을 위한 제안(생략) 등이다.

☞ 남·북은 16~17일 금강산에서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실무접촉을 열어 6월하순 3박4일 일정으로 합의 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하다. 방북일자는 5월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으며 방문단은 특별수행단, 의료지원단, 정부지원단, 기자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총련) 중앙대표들과 재일본 대한민국인단(민단) 중앙대표들이 총련 중앙회관에서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갖고 '5·17공동성명'을 발표 민족적 단합의 새역사

를 이루게 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공동성명에서는 총련과 민단은 6·15공동선언이 천명한 '우리민족끼리' 리념에 따라 민족적 단결과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흐름에 맞게 두 단체간에 오래 지속되어 온 반목과 대립을 화해와 단합으로 확고하게 전환 시킬 것을 서로 확인 하는 등 6개 항목을 합의하다.

'5·17공동성명'은 민단 중앙본부 하병욱 단장 등 대표단이 총련 중앙본부로 서만술 의장 등 대표단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총련측에서도 서만술 의장과 허종만 책임부위원장, 남승우 부위원장, 리기석 부위원장, 홍인홍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배익수 총무국장, 백구호 통일운동국장이 민단측에서는 하병욱 단장, 김광승 의장, 김창식 감찰위원장, 김소부 부위원장, 박소명 부단장, 강영지 기획조정실장, 서원철 조직국장이 참가하다.

18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5·18비상시국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각계대표 803명이 선언에 참여했고 30여명이 기자회견에 함께했음. 정광훈, 문경식 대표 등 결의 발언과 평성주민대책위 신종원 조직국장의 투쟁결의발언,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5·18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맞아 '5·18정신계승, 평택기지확장반대 서울촛불문화제'가 열리다.

19

☞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 민연련 주관의 '평택미군기지반대운동음해 폭력진압선동 조선일보 왜곡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대표의 여는말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민연련 신문모니터위원회 류지향 분과장,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등 규탄발언과 최민희 민연련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20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촛불문화제에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들 함께하고 장경욱 운영위원(변호사)의 결의 발언이 있었음.

☞ 양심수후원회 제18차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종로 부암동에서 열다. 재정·활동보고에 이어 양심수후원회 운영 및 업무분담 관련 구체적 내용을 토의하다.

21

☞ 평택시내에서 150여명의 시민.학생.시민단체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평화마라톤'이 열리다.

☞ 양심수후원회 5월 산행의 날

종로구 사직공원앞에서 모여 종로도서관-인왕산길-성터-인왕산정상(338.2m)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경복궁 등 서울 장안을 가까운 곳에서 조망하다. 다시 옥인동 쪽으로 내려오다 넓은터에서 점심식사, 소개시간을 갖고 통일연대 전 사무처장으로 옥고를 치루고 나온 민경우씨의 미국의 군사패권과 북미관계 등에 관한 시사강연이 있었음. 다시 하산 인왕산길-사직공원으로 내려와 가까운 곳에서 뜻있는 뒷풀이로 모두 마침. 변숙현, 류종인, 김장현, 김영식, 조순덕, 유민호, 윤달임, 박경순, 김지영, 김호현, 김재현, 김재선, 신현익, 나순석, 나민지, 이창희, 한수정, 이용준, 신현부, 민경우, 홍세희, 김환진, 권오현 등 함께하다.

22

☞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규탄 및 방위비분담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협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마치고 항의 서한을 외교통상부에 접수시키다.

☞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민주화운동계승연대 회원 40여명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돌입집회를 열다. 이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강민조,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와 동일방직 해직노동자의 복직촉구발언, 정동익 동아투위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대표단 열린우리당에 들어가 명예회복법 개정을 촉구하다.

☞ 양심수후원회 모성롱 운영위원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아버님 모칠근 님께서는 구강암으로 투병하시다 용인 샘물호스피스요양원에서 요양하셨으나 21일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1일엔 여혜정, 모지희 회원들 음식롱·감시롱 회원들이 문상다녀왔으며 22일엔 소수영, 김호현, 이득형, 양인철, 김필호, 김혜순, 정향숙, 김장욱, 권오현 등 문상하셨습니다. 고인은 23일 수원 화장장에서 화장하여 분골을 샘물호스피스 장지에 산화장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송전탑 고공농성이 일주일

에 접어든 가운데 하청지회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4박 5일 간의 상경투쟁을 진행하기로하다.

✚ 광주 전남대 용봉관에서 5·18민중항쟁 26주년 행사준비위원회와 전남대학교 5·18연구회, 한국NGO학회 등 공동주최로 '민주주의·평화통일과 시민사회'란 주제로 '5·18 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백낙청 6·15 남북위 상임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통일운동과 시민사회'란 주제에서 가톨릭대 안병욱 교수의 '광주 오월항쟁의 계승과 평화통일운동'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위원의 '6·15공동선언과 통일시민운동' 이우영 북한학회 교수의 '시민사회 통일운동의 공·과' 등 발제를 하다.

✚ 16년동안 양심수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단국대학교 법사회학회가 23~25까지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후원주점을 열었음. 이 날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안병길, 이득형, 김재현, 양계숙, 신현부, 모지희, 김한진, 권오현 등 후원주점에 들러 격려와 연대를 다짐하다.

✚ '후원회소식' 176호 발행과 관련 이득형, 김한진, 권오현, 편집회의를 열고 기사와 필자, 원고청탁 등 기획안을 내다.

25-----

✚ 국방부 앞에서 통일연대, 평통사 등 시민사회 단체 주최로 제8차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적 유연성 합의 규탄'과 '밀실 협상 중단',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다.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오해란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취지말,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경찰청 앞에서 평택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경 주둔으로 인해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대집행 이후에도 ○검색으로 인한 주민고립 ○군용헬기 저공비행위험 및 소음문제 ○군·경의 민간지역 활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증폭 ○군용폐류 논으로 방류 및 쓰레기 방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CCTV 설치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며 군·경은 대추리·도두리에서 떠나라고 촉구하다. 마치고 장경욱, 임기란, 박래군 등 대표단 경찰청의 김철주 경비국장 등 만나 인권침해 항의와 시정책 요구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618회 목요일집회 열다.

임기란 운영위원의 여는말, 이도경 KTX승무원노조 대의원의 단식농성 상황보고, 권오현 공동대표의 평택상황 보고 등 있었음.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긴지 1년 6개월이 되고 있지만 사측의 무성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지난 5월22일 비정규노동자들은 서울본사 12층 사장실을 점거 노·사 직접대화를 촉구해오고 있으며 3일째인 이 날 노조원들은 ①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음료수와 음식물 반입허용 ②용역강제투입 중단과 노·사 직접접교 ③경찰병력 철수 등을 요구하여 계속 농성중이다.

26-----

✚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김진동 판사는 '통일내전론'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필화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도던 강정구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북의 대남적화해명론 등에 동조하고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선동적 표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주장을 했다고 하다. 그러면서 '사상은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수렴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폭이 넓어졌다면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다. 재판이 끝나고 강정구교수 무죄대책위는 법원 계단에서 유죄판결 규탄 정리집회를 하고 있었으나 보수단체들이 폭언과 방해를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폐지를 연호하며 이에 맞서다. 대책위는 법원 정문 앞에서 김세균 교수 등 유죄판결규탄발언 등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다.

✚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계승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촉구농성 정리집회'를 열다. 이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강민조 상임공동대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개정촉구 등이 있었고 이 날까지 5일동안 농성투쟁을 정리하다.

✚ 서산 만리포 해안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받아오던 활동가들이 이 날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서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았음. 범남본 이규재 의장과 평통사 활동가 등 8명은 출두에 앞서 '경찰소사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RSOI-FE)이 대북선제공격연습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국방부와 경찰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과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마포경찰서로 이규재 의장, 김영식 선생님, 최복렬, 김판태 활동가 등 4명을 격려방문하다.

27

☞ 27~28일, 움시룽·감시룽 제44차 정기기행 다녀오다.

움시룽감시룽은 '충무공의 충정이 살아 숨쉬는 새뜻한 바닷길'이란 주제로 1박2일 동안 통영·거제 기행 다녀오다. 거제 포로수용소와 통영일대의 이충무공 유적지 그리고 한려수도를 돌아보는 등 알찬 기행을 하다.(본지 10~11쪽 기행문 참조)

☞ 남·북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열차시험운행중지문제에 대한 군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식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서해상 충돌방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려 했으나 남측은 '북방한계선'만을 고수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평화가 없는 협력과 교류란 있을 수 없고 전쟁의 위험을 덮어둔 채 '평화협정'이란 지뢰밭에서 공마당질을 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또한 "6·15시대에 역행하는 백주대낮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데서 공화국기를 불태우는 망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하다. 또한 "동·서해선 북·남철도 연결공사는 쌍방 합의에 따라 동시착공 동시완공 동시운행의 원칙에서 병행 추진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서해선 철도연결에만 치중해 왔다."고 비난하다. '공식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가 넓은 부지를 뚝 떼어 준 이후 평토작업이나 해 놓고 한쪽모퉁이에 '시범공단'이나 운영하는 형편"이라며 "우리 군대는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비롯한 모든 북·남 협력교류가 단명으로 끝난 금호지구(경수군건설현장) 건설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다.

29

☞ 성균관대학 심산사상연구회는 대학600주년 기념관에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에게 제17회 심산상 시상식을 갖다. 제17회 심산상 심사위원회는 "리영희 교수가 '전환시대의 논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등 저서에서 현장적 자료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두 차례의 해직과 옥고를 치루면서도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된 지식인으로, 자유인으로 일관해왔다."고 평가하다.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등 축사가 있었음. 이어 리영희 교수는 수상강연에서 "위인이란 시대를 초월해서 위인이어지지 생존했던 시기의 스승이 되어서는 참된 스승일 수 없다."며 "현실문제에 대해서 심산선생의 사상을 연관시키는 연구와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다.

30

☞ 울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사회단체성원 40여명이 모여 제57차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평통사 김판태 평화군축팀장, 임종철 공동대표 등 국방비증액중단 촉구발언과 평통사 소속 회원의 국방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다. 이어 식사술에 매단 '국방비증액'이라고 쓴 종이크드를 가위로 자르는 상징의식을 갖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접수시키다.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평택미군기지반대 서울대책위 주관으로 31차 서울촛불문화제를 열다. 이 날은 자유발언과 학생 몸짓패 공연, '사이+해금' 등 노래공연이 있었으며 범민련, 통일광장 등 사회원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 하셨음.

31

☞ 제4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열린우리당의 참패,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나타난다.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본사 사장실 점거농성 9일째를 맞고있는 이 날 용역과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비 노동자들은 결의를 다지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주 죽선교 15만4천불트 송전탑에서의 고공농성도 15일째를 맞아 노·사 직접대화로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다. 서울 본사 소속농성장에서는 매일밤 8시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음.

☞ 6·25전쟁 당시 미군이 방어선을 넘어오는 피난민들에게 팔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정부에 보고했음을 입증하는 당시 주한 미대사의 서한이 공개되다.

☞ 30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 존 무초는 1950년 7월 26일 딘 러스도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일 피난민들이 미군방어선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계속 다가오면 사살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미7기병연대가 노근리에서 양민학살을 하기 하루전인 7월25일 임시수도 내무장관실에서 미8군 고위참모와 무초대사를 대리한 해럴드 노블 일등서기관 그리고 한국 관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다. 이는 7월 26일 자행된 노근리 양민학살이 '우발적'이라는 미국방부의 이제까지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